

<존재하겠습니다>

-장르: 실험단편 -

S#1 작업실(새벽/실내)- (->원지 왈- 테찰을 해봐야)

새벽 4 시즈음, 어둠 속에서 사물들이 천천히 떠다닌다. 작품에 걸쳐졌다 안 떼어졌다 한다. 자기들 끼리 웃으며 장난을 친다. 사물들의 웃음소리.(사운드-사람의 언어는 아님.) 미끄럼틀을 타는듯 간죽거리는 움직임. (+ 여기서 사물들은 작품에 쓰일 다양한 자재들을 말한다.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불빛이 사물들의 동선을 따라 이동한다.

0 과 1 이 떠드는 소리와 함께 사물들은 깜짝 놀라며 스-스-스-속 원래의 제 자리로 돌아간다.

스위치로 불을 켜는 손 등장. 스위치 주변의 벽지 주목.

작품 앞으로 옆으로 빙그르르 돌면서 0 과 1 이 등장.

행동묘사 - 빙그르르 좌우로 돌며 자연스럽게 바닥에 있는 도구를 양손에 쥐고 작품의 중앙으로 들어온다. 설레는 마음이 드는지 마주보고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동동 구른다.

커다란 설치작품 앞 둘은 이야기한다.

0: (회의감이 섞인 말투로, 자기 행동도 좀 이해가 안가는듯한 마음에) 일야, 우리는 지금 뭘 만들고 있는거야?

1: 그냥 만들고 있는 거야 . 뭘 만드는 지 모르는 기분으로 만들어야지 뭘 만들지 알고 만들면 재미 없잖아 안 그래?

0: (심하게 고개를 흔들며) 맞아 맞아! 만들어진 결과물에는 책임이 없어. 아 마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치?

불안한 눈으로 1 은 0 을 쳐다보다 다시 작업 물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0: (혼잣말로 작은 목소리로) 이걸 여기에 , 아니다 이걸 여긴가..? 이것봐..!
낄낄..

작업에 열중하다 땀 짓을 한다. 설치 물에 올려놓을 망을 자기 머리 위에 뒤
집어 쓰고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혼자 재미있어한다.

1: (혼자 심각해하더니 갑자기 말한다.)정신 차려. 이런 작업은 설득을 하는게
가장 중요해. 우리만 좋자라는 생각으로 만들면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을거야.!

갑자기 풀이 죽은 0은 입을 삐죽거리고 있고 두손에 쥐고 있던 장비를 특하
고 떨어뜨리더니 구석으로 몸을 옮긴다 (행동묘사- 갖고 있던 도구를 떨어뜨리더니 어
깨가 축쳐진 자세로 자기 발을 끌듯이 느리게 걸어가다 옆드린 채 구석까지 기어 걸어간다.) 자신을
애워 싹 벽을 만지며 안도감을 느낀다.

0: (풀이 죽은 얼굴로) 그럼 설득은 어떻게 하는 건데? 난 남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께

1 은 바닥에 쓰레기 사이로 덩그러니 놓인 먼지가 꽤 꽤히 쌓인 책(국어사전
이라고 적힌)을 찾아낸다. 먼지를 털더니 줍는다.

1 은 0에게 책을 던진다. 0은 책은 기가 막히게 잘 받는다. 그러나 받고 날
리는 먼지에 기침을 한다. 콧물콧물.

1: 거기에는 수만 가지 언어들이 들어있어.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소통'이라
는 것을 할 수 있지.

0: (눈과 입을 동그랗게 모으며 호기심 가득) 오...

국어사전을 펼친다. 국어사전 내부 보여준다.

1: (다 아는것처럼)그 수많은 단어 중 너만의 것을 찾으면 '성공'이지.

0: (불만스러운 어투로, 짜증) 제발 그 성공이라는 단어 좀 안 쓰면 안돼? 나만의 것을 찾는게 뭐 그리 어렵다고?!

동시에 0 은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굴리며 미친듯이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글자에 눈이 왔다 갔다 돌아간다. (화면- 글자들이 0 의 얼굴과 겹쳐진다.)그러다 피곤해진 듯한 표정을 하고 피곤해진 눈을 하고 얼굴을 도리도리 흔든다. 머리위로 공들이 쏟아진다. 와르르르 (공 스티로폼 필요),

0: (소리를 지르며) 으악!!

쏟아진 공들 사이로 0 의 머리가 나타나고 공을 하나 꺼내 확인해보니 지성이라 쓰여있다. 짜증을 내며 카메라를 향해 공을 던진다.

1: 그만하고 이거 옮기고 저것도 옮겨줘

어지러운듯 0은 힘겹게 일어난다. 일어나다 공을 밟아 버렸고 엉덩방아를 찢는다. 아야! 소리만 들려온다. 검은 화면

S#2 방 (밤/ 실내- 침대 주변으로 물건이 많고 정신이 없고 산만하다.)

1 은 침대에서 1 은 누어 있다. 천장을 보고있다. 0 으로된 잠옷과 1 로 된 잠을 입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이불 위에 누어 있다. 1 은 잠이 오지 않는지 눈을 깜빡 깜빡거린다. 0 은 누어서 이를 닦고있다. 그러더니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1: (화장실까지 들으라고 크게 말한다) 아직도 너 헛구역질하니?

0: (화장실안에서의 소리)우에엑 멈추질 않는데 어떡하라고!

0 이 엉덩이를 붙잡고 아까 엉덩방아 찢게 아직도 아프다고 칭얼댄다. 침대

속으로 들어온다. 둘은 똑같은 자세로 침대에 누어 있다. 1이 0을 향해 돌아 눕는다.

1: (눈을 깜빡거리며 0에게) 근데 잠이 너무 안 와..

0 은 장난스럽게 배시시 웃더니 고덕이고는 라디오의 시작버튼을 누르더니 둘은 침대 위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음악→ 골든누들- 라운드로빈을 시작으로 하루오미호소미- sportsmen)

0 과 1: 역시 춤은 밤부터 아침까지 춰야해.

S#3 작업실 가는 길- 능선에서 (낮/야외)

햇빛이 짹짹한 어딘지 모를 몽환적인 숲속에서 둘은 조금 요상한 포즈(-딱딱하고 행동범위를 넓게 잡아 엉금엉금)로 박자에 맞춰 걸어간다. (음악)

큰 꿈을 가진 사람들처럼 몽상가들처럼 팔을 휘저으며 걸어간다. 좀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랑스럽다. (노래가 나온다)

노래가 나오다가 중간 끊기고 만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쳐다보며 (카메라를 쳐다보며) 라고 외친다.

1: (얼굴이 울구락불구락 되며 씩씩거리며) 왜 노래를 꺾어?!!! 난 계속해서 노래를 듣고싶단 말야..

0: (하늘을 같이 바라보며 손을 뻗어 휘저으며) 아 됐어 됐어! 꺼꺼!

0: (1을 마주보고)너무 긴 노래는 건강에 해로워... (머리를 양손 검지로 문질러주며, 1은 눈을 감고있다.) 뇌에는 적당한 노래를 들려줘야해.

S#4 작업실(낮 /실내)

0: 우리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

망치와 여러가지 도구들을 사용해 두드리고 있다.

S#5 작업실 (오후/ 실내)

너무 과로를 한 탓인지 0 과 1 은 비틀비틀 걸어가 의자나 사물에 몸을 급하게 눕힌다. 손과 발에 어정쩡하게 의자나 사물에 몸을 걸치고 있는듯한 그림. 흐느적거리는 액체 같다. 뭔가 불편해 보이는 듯하다.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코피도 나 있다.

0 의 코에 코피가 나고 헛바닥으로 코피를 살짝 먹는다.

1: 안돼 먹지마! 하며 볼을 두 손으로 잡는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자 작업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표정을 한다. (-멍때리면서 현타오는 표정)

1: 너무 힘들어.. (뺨굴면서)

0: 나도

0 이 눈을 감는다.

1 은 벌떡 일어난다. (머리가 산발이다.)

0 도 같이 벌떡 일어난다.

0: 왜? 왜! 무슨 일이야

1: 안되겠어!! 스승님을 뵈야겠어

0: (너무 깜짝 놀라 짜증난 표정으로) 난 또...

0 은 다시 눕는다.

S#6 구불구불 길 (낮/ 야외) -> *설명: 스승님을 만나러가는 길.

0 과 1 은 스승님을 찾아간다.

0 과 1 눈앞에서는 보라색 길과 빨간색 길이 나온다.

1 은 붉은색으로, 0 은 보라색길로 다르게 가려고 한다. (풀샷)

1: (다른 쪽에 있는 0 을 바라보며)스승님 댁은 이쪽 길로 가야해 (대화씬)

0: 아니야 이 방향이야.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대화씬)

1: 아니라니까?!

1 과 0 의 몸이 바뀐다. (옷도 바뀐다.) 붉은색길에 있던 1 은 보라색길에 서있고 보라색길에 있던 0 은 붉은색길에 가 있다. (풀샷에서 바뀐거 보여주기)

1: 그러니까 보라색 길로 가야지 -(바스트신)

0: 그러니까 빨간색길로 가야지!- (바스트신)

아 잠깐만? 너가 아까는 빨간색 길로 가야한다매 왜 거기 가 있어? 나는 또 왜 여기있고?

1: 무슨 소리야.. (바닥을 확인하더니) 어?! 그러네...? (밑에서 위로 본 얼굴)

0: 근데 무슨 상관이야.

1 은 갑자기 웃음을 터트린다. 서로 샷대질을 하며 어이없어 한다.

1 과 0 이 지나다니는 길마다 새롭게 무지개 길이 그려진다. 노래 0 과 1 은 웃으며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과 같이 해맑게 웃으며 길을 지나다닌다. (아이

디어- 크로마키천을 바닥에 깔다. 키잉을 하고 거기에 화려한 영상을 만든다

S#7 스승님을 만나는 곳 (낮/ 야외)

천을 열고 들어간다. 천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온다(→ 이걸 조명으로 가능한 연출
인가요,,?). 0 과 1 은 눈이 너무 부신다.

스승님의 얼굴은 여러사람의 얼굴로 이리저리 변화하며 마치 하나의 인격보
다는 여러 개의 인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 이다.

S#8 스승님을 만나는 곳(낮/ 야외)

따스한 햇빛이 드리우고 새들은 작게 짹짹거린다. 초록 초록한 배경에 스승
님이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신다.

0 과 1 을 발견 스승님은 도도하게 무심한듯 손인사만 하고서는 차를 호로록
마신다.

식탁 위에 셋은 차를 마시며 앉아있다.

스승님: (차분하게) 네가 무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니?

0 과 1: 내 자신이 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온전한 내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야
네가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은 이해하나 굉장히 위험할 일이다. 포기하거라. →

드드르륵 자리에서 일어나며, 스승님은 여전히 앉아있다.

1: (1 의 손을 꼭 잡으며)싫습니다 저는 스승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여러개의
자아를 흡수하면서 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화를 내며)

1 은 0 을 보고 있다.

문밖을 나서는 0 과 1. 안쪽 문이 닫힌다.

S#9 돌아가는 길 (오후/야외)

0 은 톤툼몰라 노래를 흥얼거린다

1: 무슨 노래야?

0: 이것도 몰라?! 엄청 유명한 가수잖아~

1: 온전한 내가 되어 창작에 몰두하는것과 그 동시에 명성까지 얻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명성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거잖아.

0 이 1 의 말을 듣지 않고 꽃이나 식물에만 혹은 다른 시선으로 관심을 보인다.

0: (1 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 무언가를 발견) 엇! 톤툼몰라다!!!

0 과 1 은 가던 길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어딘가를 향해 보고있다.

S#10 톤툼몰라가 있는 나무가 있는 공간 (오후/야외)

1 과 0 은 집으로 가던 중 유명인사 톤툼몰라를 보게 된다. 걸모습이 화려하고 뮤지컬 의상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다.

톤툼몰라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있다.

나무주변으로 사람들은 둘러싸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어쩔 줄몰라하는 톤툼몰라

S#11 길-> 나무 (오후/야외)

0 은 톤툼몰라 쪽으로 뛰어온다. 0 의 뒤를 따라가는 1.

0 과 1 은 나무위에 있는 톤툼몰라를 밑에서 바라본다.

0: 우리가 톤툰몰라를 도와주자

1: 하지만 어떻게?

0 이 1 의 손을 잡고 끌고가더니 1 을 인위적으로 잔디 위에 눕힌다. 1 은 눕는다.

0 은 연기한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1 은 아픈 연기를 하며 으으욱거린다.

사람들은 0 과 1 에게 시선을 돌린다.

사람들은 웅성 웅성거리며 0 과 1 을 바라본다.

누어있는 1 은 눈을 살짝 뜨더니 나무에서 내려와 긴 치마를 붙잡고 총총총 도망하는 톤툰몰라를 본다. *(나무에는 하트 사인이 그려져 있다.-널지말지)* 카메라가 끝까지 사라지는 톤툰몰라를 보여준다. *(폐닝)*

0 은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0: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사람들은 갑자기 재미라도 없어진듯이 프레임 아웃

0 과 1 은 두리번두리번 거린다.

0: (먹으면서)우리가 톤툰몰라를 돕길 잘한걸까?

1: 몰라? (어깨를 으쓱이며)

0: 그런데 진짜 우리가 톤툰몰라를 보게될줄이야...

헛둘헛둘 노래에 맞춰 같은 팔과 다리를 휘젓는다. 빙글빙글 돌기도 한다.

뒤에 톤토몰라 어디선가 몰래 0 과 1 을 지켜보고 있다. 따라오는 것 같다.

S#12 작업실(밤/실내)

0 과 1 은 싸운다.

0: (1 이 만든 것을 떼어내며) 이걸 여기 안 어울리잖아.

0 이 1 이 만든 것을 작품에서 떼어버린다.

1: (기분이 너무 나빠진 얼굴로)나는 이게 여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0: 내 생각은 달라.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걸 여기 넣는게 낫지. 바보야.

0 은 다른 것을 작품에 데코레이션 한다.

1: 뭐 바보?!!

0 은 1 을 무시하고 작업에 집중한다.

1 은 그런 0 에게 상처를 받은 얼굴을 하고, 울음을 참는듯 입을 삐죽거리며

0 은 무시한 채 작업에 몰두한다. 둘은 아무 말이 없다.

S#13 작업실 (늦은 밤/ 실내)

시간이 흘러, 정적을 깨며 1 이 말을 댄다.

1: 그만 헤어지자. 우리는 같이 있을 수록 서로 폐만 미칠 뿐이야.

0: (흠쩍이며) 그러지마. 나는 너가 없으면 절대 이걸 완성시킬 수 없어.

1: 그거 알아? 인생을 두가지로 쪼갰다면 실패와 성공뿐이야. 나는 이걸 절

대 실패한 작업 물로 내버려두지 못해. 세상 밖으로 다 꺼내 놓을꺼야.

0: (입을 삐죽거리며 울먹울먹)내가 더 열심히 할께...

0 은 1 에게 쫓르르 가까이 가지만 1 은 나가버린다.

S#14 작업실 야외 (늦은 밤/ 실외)

1 은 밖으로 나간다. 1 은 소파에 주꾸려 앉아있다. 0 이 따라 나와 앉는다.

기분을 풀기 위해 잠시 나온 0 과 1. 입에 쭈쭈바를 먹고 있다.

1: 우리는 왜 싸웠는데 이렇게 같이 있을까

0 은 동그랗게 자기 몸을 감싸고 있다.

그러다 하늘위로 날리는 인간비닐봉지가 떠다닌다.

1: 엇 깜짝이야 저게 뭐지!

0: 그냥 비닐봉지잖아..

1: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시작)문득 우리의 존재가 비닐봉지와 같다는 생각 안들어?. 웬지 모르게 저 연약한 존재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이 우리를 닮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바람이 만든거잖아 비닐봉지만으로는 데구르르 굴러갈수도 살아있는 것 같아 깜짝 놀라지도 않았을거야.

0: (갑자기 깨달은 듯 신나하며)우리가 바로 비닐봉지야! 비닐봉지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람만 불어준다면 충분히 순식간에 세상사람들을 놀래킬만한 존재가 될수있는거라고....

0: 맞아..이 행위가 우리를 살아있게 해. 우린 더이상 연약하고 힘없는 자아가 아닌 아주 단단한 자신으로서 살수 있게 되는거지. 이걸 어떻게 버려? 후..

1: 그러니까 힘내자.

동시에, 0 과 1 의 자아는 서로 마주보고 소파에 앉는다. 꺼안고 원의 모양을 하고 있다.(행동묘사) 화해한다.

S#15 같이 사는 집(밤/실내)

다시 0 과 1 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방안에 침대앞에 놓여져 있는 산더미같은 물건들 위로 둘이 아빠 다리를 한 채 마주보고 앉아있다. (잠옷)

오늘이야말로 0 과 1 은 취향을 확고히 정할 때가 왔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모든 물건을 정리하기로 한다.

0 과 1 은 공을 던져가며 이것은 아니고 아니 이것은 맞고 서로 다른 취향을 선택하며 정리하고 버리는 과정에서 아니요와 예와 같은 반복되는 음악이 나오며 둘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한다.

0: 이거 너 취향이다. 자! (1 에게 던진다)

1: 아냐 내가 언제 이런 거 좋아했다고 그래..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0: 내가 이런걸 좋아할리 없어. 너 가져!!

1 은 0 이 던진 물건을 받는다.

0 을 한번 보고 참나! 하고서 1 은 물건에게 말을 건다.

1: 사물아 사물아~ 너는 내가 맘에 드니? 내가 왜 너를 선택해야되는지 말해줄래?

0 은 1 을 보더니 인형을 흔들며 응?응? 말해봐.

S#16 같이 사는 집 (밤/실내)

0 과 1 은 앞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작품설명을 해보기로 했다.(→ 사람

모양 인형들(미-S#15 과 다른 인형)이 줄줄이 앞에 있다.) (잠옷)

0: 김수환무거복이와 두루미...(→랩처럼 끝도 없이 설명을 이어간다

그러나 1 이 하품을 하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즐기시작한다.

0: (어깨를 흔들며 깨우며)일어나 야!! 내말 왜 안들어~~

0 과 1 은 단정하게 허리에 매던 점프 슈트를 다시 고쳐 입고 마음을 먹은듯 의지를 다진 표정. 서로의 옷매를 정리해준다.

방에 있던 인형들을 하나 둘씩 데리고 작업물 주변에 정갈히 놓는다.

그러더니 공간에 바람이 불더니 설치물이 바람에 흩 날리는 장면 살랑살랑 나뭇잎이 움직이듯 움직인다.

0 과 1 은 손을 잡고 작품앞으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손을 마주 대고 있다가 팔을 펼친다.

0 과 1: (인형들에게 외치며) 자! 이제 우리는 의식을 치룰 것입니다.

인형들:

인형들은 말이 없다.

뻗뻗한 듯 눈을 굴리고 입을 인위적으로 웃음을 짓는다.

어떤 기점에서, 0 과 1 이 작품 속에서 다비드 상처럼 굳어버린다.

(감동받은 얼굴로) 톤토몰라가 박수를 친다.

S#17 0 과 1 이 사라진 작업실 (밤/ 실내)

사라진 0 과 1 의 공간들이 나온다. 사물들 크로즈업된 것들 등등....을 집어넣고 노래가 나오고 끝난다.

